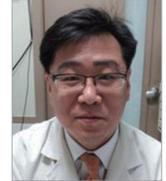


이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

21회 - Palliative surgery(완화수술, 고식적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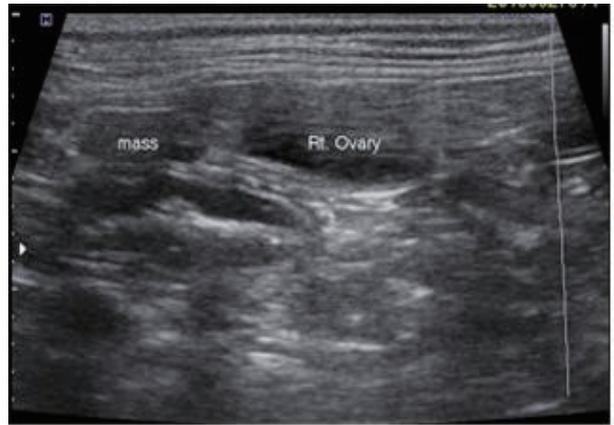
이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이번 케이스는 강남의 I동물메디컬센터 이원장님께서 제가 운영하는 수의치과카페의 임상Q&A에 올렸던 케이스로, 나중에 시술 후에 케이스 리뷰까지 올라왔던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수의치과에서는 Palliative surgery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I동물메디컬센터 이원장님케이스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케이스 같아서 재편집해서 올립니다. 수술 후 케이스 리뷰도 있어서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1. 안녕하세요? 원장님. 15세 중성화 안한 암컷의 구강 사진좀 봐주시겠습니까?

- 치주염, 치은염, 치은 과증식, 치은 종괴
- 207 거의 빠진 상태
- 208, 209 영역의 큰 종괴
- 일반 방사선 촬영상 307 치아 밀도 소실중(치과 방사선 촬영 필요)





통증 제어와 삶의 질 상승을 위해 보호자는 치과 치료를 원하십니다.

조직 검사와 종양에 대한 언급은 했으며 전신 종합검진상 복강 내 작은 종괴가 여러 개 보이고(폐는 깨끗합니다) 나이도 많지만 마취를 못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 원장님의 작은 조언이라도 얻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동물메디컬센터 이원장님)

A. 원이원장님의 케이스를 보면 치과방사선 촬영을 안하고 사진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더구나 복강 안에 메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원장님의 환축은 수명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고 간이나 흉강에 이상이 없어도 10명에 9명의 수의사는 치과치료를 포기하도록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히 현실인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국내의 수의치과에서는 Palliative surgery란

개념이 없었던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원장님께서는 보통의 수의사와는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이원장님의 케이스는 전형적인 Palliative surgery입니다. 우선 Palliative surgery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어떤 경우는 가망이 없어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palliative surgery라고 합니다. 즉 완화수술 혹은 고식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으로 인해 생활이 너무나 불편한 경우(예를 들어, 암 때문에 아예 항문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기도가 막혀서 숨쉬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불편함이라도 덜어주고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Palliative surgery란 용어 그자체가 완화수술이듯이, 병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과 괴로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의 차이는 큼니다.

이외에 인의에서는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Palliative treatment이죠.

즉 Palliative surgery란 말 그대로 병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경감치료, 수술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술을 왜 수의치과에서 시행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진료상황입니다.

보호자 원장님 우리 아이가 14살인데, 밥을 안먹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원장님 치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구강에 치주염이 심하고 치아가 흔들려서 사료를 제대로 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선 혈액검사, 방사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마취가 가능하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검사가 끝난후,

원장님 검사결과 비장, 십이지장, 난소에 종양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구강 안에도 종양이 존재하고 있고, 치주염도 심해서 밥을 안먹는 것 같습니다. 폐나 간에는 종양이 발견 안되었고, 혈액검사상은 정상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아이는 복강에 종양이 존재해서, 제 생각에는 수명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그냥 진통제 처방할테니 집에 데리고 가서 많이 아플테니 사는 날까지 진통제를 먹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와 같은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는 별로 좋은 진료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혈액검사상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방사선과 초음파상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지만 그리 심한 케이스는 아니고, 더구나 간이나 폐도 방사선상 깨끗하므로, 이 환축이 밥을 안먹는 이유는 복강이나 간과 폐의 문제가 아니라 구강종양과 심한 말기 치주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원장님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구강내의 종양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처치를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예, 여기서의 치료방법이 Palliative surgery입니다. 즉 원인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태를 일시적으로는 호전

시킬 수 있는 수술이죠. 위의 환축은 구강내의 문제로 밥을 못 먹는 것이죠. 예전에 종양질문시 답을 드렸지만, 구강종양이 무서운 것이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 종양이라도, 국소적으로 구강안에 종양이 생겨서 커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밥을 못 먹어 굶어죽는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밥을 먹지 못해서 죽으니까요.

그럼, 현 상태에서 진통제를 주기만 한다면 이 아이는 아마도 밥을 제대로 못먹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인데, 만약에 Palliative surgery를 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원장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부전인 환축이 오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왜 비용을 들여서 신부전 치료를 하나요?

그 이유는 남은 생이 얼마 안되지만 그동안 먹는 것만이라도 잘먹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서 완전히 고칠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신부전치료가 Palliative treatment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수의사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10살이 넘어가면 특히 13살 이상이 되면 치과치료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질병이 있으면 더더욱 치과치료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을까봐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치주염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나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심혈관계 질병이나 소화기 심지어 신부전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저희병원에 치료한 타이거의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타이거의 경우 근 1년 동안 얼굴에 손만 갖다 대어도 소리를 지르고, 약을 먹으려면 얼굴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놀라고 소리를 질러서 청색증이 올 정도였고, 사료도 잘못먹는 상태로 내원한 마른 환축이었습니다.

이 환축이 5월2일날 치과치료를 받고 6월말 정도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만족을 하는 것이, 치과치료를 받기 전에는 얼굴에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던 타이거가 치과치료를 받은 후에는 얼굴에 손을 대어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식사도 잘못하던 아이가 사료도 씹어 먹고, 치료 전에는 활기가 없던 아이가 보호자의 표현으로는 날아다닐 정도로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2달 정도를 더 살았는데도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잘먹고 안아프고 활기차게 살다가 가서 보호자가 나중에도 만족했어.

1. 왼쪽상악의 종양의 처치

이원장님의 케이스사진에도 나오지만 왼쪽상악의 경우에는 종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장님의 환측도 왼쪽 상악의 종양은 원래 최소한 치주인대를 포함하여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적극적인 치료법이 되고, 마취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냥 종양부위만 보비로 제거를 해주세요.

2. 치은종대

현재 사진상 보기에는 Pseudo pocket은 없어 보이는 대신 labial쪽으로 종대된 것이 보이는데, 그중 심한 것들은 치은절제술을 해주세요.

3. Furcation이 심한 치아들

Probe검사상 Furcation3인 치아들은 모두 발치해주세요. 즉 Furcation3인 치아들은 어차피 mobility가 2, 3인 치아들입니다. 현재 환측이 복강내 메스가 없다면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겠지만, 얼마 수명이 안남은 상태이니 발치를 추천해드립니다.

4. 발치시 주의점

비교적 Furcation3인 치아들은 mobility가 높으므로 쉽게 발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발치만 하지 말고 발치를 한 다음 치근이 있던 부위는 염증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위를 깨끗이 큐렛으로 정리 해준 다음 봉합해주세요.

5. 치근활택술/치은소파술/연고도포

Incisor, canine, premolar, molar 모든 부위를 프루빙 해보면 아마도 치주낭이 깊거나 부착 치은소실이 심할 것입니다. 치주염이 심하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치근활택술을 해주어야 하는데, 조심할 것은 자신이 없으면 큐렛을 사용하지 말고, 치과재료상에서 perio tip을 구매해서(루트1개용과 루트2개용) 냉각수를 최소로 하고, 파워도 1/3이하로 조절해서 빠른 속도로 치근활택술을 해준 다음, 미노클린을 얇게 도포해주세요.

6. 약물처치

스켈링 30분전에 항생제와 진통제 처치해주시고, 마취 후에 바로 상악, 하악에 블럭마취해주시고, 최초 항생제 투입 후 4시간 뒤에 다시 한번 항생제 처치해주세요. 소염진통제는 스테로이드 말고 NSAID를 사용해주세요.

아마도 위의 처치만 받아도 치과치료전과 후에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의 선생님들은 복강에 종양이 있으면 치과치료를 기피를 많이 하는데, 이원장님께서 환측에게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치과치료에 들어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수의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에 환측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꼭 임상케이스에 올려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 케이스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행동학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꼭 케이스리뷰 부탁드립니다.

강남 동물메디컬센터 이원장님 수술후 케이스리뷰

두 시간 가까이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다행히도 환자는 잘 회복되었고, 수술 전 식욕 부진이 심각했었는데 수술 당일 저녁부터 식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보호자는 수술 직후부터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 인사를 수년간 안했었는데 수술 후 다시 어릴 때 처럼 아침 인사를 하고 눈빛, 식욕 활력 등 모든 게 회복된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 후 12일 경과하였는데 환자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처음 악성종양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삶의 질 상생을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수술을 권유하였고, 종양의 재

발이나 전이 또는 MODS, 혈전, 수술로 인한 방아쇠 효과 등 많은 예상되는 여러 합병증을 보호자가 이해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호자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게!!!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술이었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이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수술전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수술후기 케이스리뷰에 대한 답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진통제만 주었다면 아마도 복강의 종양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구강종양과 치주염 때문에 먹지를 못해서 아마도 이번달도 못넘기고 사망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원장님의 종양은 아래 사진처럼 종양의 근원과 그 주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radical incision, 즉 구강으로 대입하자면 enbloc, 즉 턱 전체를 다 잘라야하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aggressive하게 치료를 한다면 수명은 1년도 못가는 상태이고, 구강 삽취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니, 최소한의 절개, 즉

intracapsula incision으로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수의 구강외과에도 intracapsula incision은 odontoma와 Palliative surgery에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원장님께서서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intracapsula incision과 발치로써 Palliative surgery를 실시해서 환축도 보호자도 만족하고, 수의사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종양이 있다면 아예 치과치료를 포기할 하는데, 사실 환축을 위해서 이원장님글 마지막에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게!!! 라고 글을 적으신 것처럼, 수의치과에서도 Palliative surgery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선진국에서도 Palliative surgery는 환축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장님께서 Palliative surgery의 좋은 후기를 올려주셔서 동료수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